

목어

내복입고 겨울나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 밖의 날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실내온도는 좋은 난방시설로 인해 영상 25℃ 이상이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 추위를 느낄 시간도 없어서 속내를 입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국제 석유값 폭등과 경제불황까지 겹쳐져서 가정과 나라의 살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겨울 날씨와 국가경제 불황으로 마음까지 얼음살판이 될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겨내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2000년 11월 30일 4개 종교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선언식'을 갖고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입기, 고효율 조리기구·전기제품 사용, 주거·업무공간 최소화 등을 다같이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우선, 모든 종교시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종교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계도할 계획이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 실천사항 중 실내에서도 내복을 입자는 것.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5℃ 정도 낮추어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간 약 8,000억 정도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내복을 입으면 피부 보호에도 효과적이고 석유 소비가 줄게 되어 지구온난화 현상도 줄어서 기상재해 걱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물을 아끼면 용왕이 돌보고, 나무를 아끼면 산신이 돌본다"는 말이 있다. 물과 나무는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인 필수품이다. 모든 에너지는 자연의 산물이다. 계속 물을 더럽히고 공기를 흐리게 한다면 지구상 어디로 가나 살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이 곧 자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쓰려면 지구 미래의 생명은 다소 희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한다면 곧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한겨울 내복을 입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낀다면 지구의 생명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국민경제와 얼어붙은 마음도 서서히 풀려나갈 기원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 논설위원)

'알고 믿고 실천' 교육 체계화

조계종 신도교육 강화 '의미와 과제'

교육공간 확보-사찰 협조 '관건'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낼 수 있는 방안의 첫째는 신도교육이다. 신도교육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자로 입문케 하고, 기존의 불자들도 불교적 실천의 길로 나서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계에서는 종단 및 사찰차원의 신도교육 도의시로 인해 불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불자층이 넓고, 사찰과 지역마다 입문절차와 의식, 교육 등이 다르게 이뤄져 종단차원의 전법교화 성과가 미약한 요인이 됐다.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사찰에서 체계적인 교육없이 기도와 주례에만 치중케 하여 기록화되는 계기가 되고, 절에 30년을 다녀도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불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30년간 불교신행을 해왔다는 이 반야행 보살(60세·상남시 분당구 수내동)은 "처음 절에 갔을 때 교리나 예법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과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힘들었다"며 "10년전 서울에 있는 조계종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불교를 제대로 알게됐다. 교육의 장이 없어 절에 찾아온 초심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포교원은 별원화 이후 신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도법개정을 추진해왔으며, 99년 9월 신도법을 개정했다.

포교원은 올해 1월 발효된 신도법상의 신도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연수국을 신도국으로 개편하고 6차례 걸친 준비모임과 전국교의 일반불자, 교양대학 졸업생 및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신도의식조사 실시와 신도교육체계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9월 신도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킨 포교원은 중부에 맞는 신도교육 체계를 잡고, 교육위원 선임 및 교과목 선정, 교재개발, 추진일정 확정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첫째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의 확보다. 지역이 소규모 사찰의 경우 가장 큰 문

제는 신도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한곳에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지역사찰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신도교육 실시에 대한 종단 내 사부대중들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얻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갑자기 형성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교육전문가 양성이다. 신도교육위의 방안은 현재 각 사찰 주지스님들을 강사로 기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신도교육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교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문적인 신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일반생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종단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미약한 상황에서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높다. 이를 위해 각 사찰에서 신도교육 실시를 강제적으로라도 실시토록 하는 중법 시행령 제정이나 신도교육 실시를 평가하여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 사회학과)는 "포교교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도교육이 교리일색이기보다는 전문성도 살려주는 교육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불교교리를 배우고 불자로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w.kim@buddhopia.com)

도자대장경 만든 성파스님

하루 10시간씩 10년동안 도자대장경 16만여장 완성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에서 10년 세월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도자대장경 불사가 완성되어 원만한 회향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통일발원으로 1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성파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자대장경. 8만1258장의 목판 2516장의 도판에 옮기는 대불사의 완성을 이룬 성파스님을 만나 도자대장경 조성의 의미와 10년 불사 과정을 들었다.



도자대장경의 조성 동기는 무엇입니까? ▲불교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역사가 길이 남을 도자대장경 조성 불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고려 때 몽고의 침략을 불심으로 막아 보자는 뜻에서 민관이 함께 16년에 걸쳐 완성한 불사였듯이 현시대 우리민족의 가장 큰 염원인 통일의 발원을 담아 도자대장경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6만 여장에 통일의 염원을 담고자 함께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이렇게 원만한 불사를 마치게 되어 고마울 뿐입니다.

도자대장경 조성 과정을 들려주세요. ▲도자대장경 불사를 입제한 것은 91년 6월입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혼자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 하나 행여온 것을 치면 20년이 걸릴 불사입니다. 무엇보다 가로 54cm 세로 33cm 두께 1.3cm인 도자대장경을 뒤틀림 없이 반듯하게 구워내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구해야 했고, 점력이 강하면 불에 약하고 불에 강하면 점력이 약해 작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지면 시행착오 끝에 점력이 강하면서도 불에 강한 흙을 구해 잘 배합하고 9백도의 불에 초벌구이한 관에 해인사대장경 복사본을 스캔으로 얹힌 후 다시 1250도의 불에 구워내면 한 장의 도자대장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10시간의 작업을 10년 동안 고박 해서 완성된 불사입니다.

도자대장경은 어떻게 모셔지게 됩니까? ▲불사는 서운암에서 했지만 개인의 불사가 아니라 판단되어 통도사 큰절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통도사로 모든 것을 일임했으니 큰절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장경각을 지어 도자대장경을 모시게 될 때까지는 당분간 도자대장경을 서운암에 그대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큰절에서 장경각을 지어 모시게 되면 원만한 회향절차를 거쳐 10년불사의 뜻을 더욱 널리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사가 완성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10년 동안 16만 여장의 도자대장경을 구워 온 정성으로 이제 통일을 향한 더욱 간절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자대장경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의 통일 역시 내실 있는 노력, 즉 실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이 본래 하나였다는 대 전제에서 출발하여 화합과 교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며 통일의 열망을 모으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WFB중역시의 한국불교

"주제발표-토론 없었다"

태국 방콕에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1차 세계불교도우의 회(이하 WFB) 총회를 계기로, 한국 불교계의 국제 활동에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언도 못하고 토론의 장에도 나서지 못했다"는 말에서 "10여 년 넘게 이 대회에 참석해온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까지, 총회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 향한 비판이 거세다.

'불교와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WFB 창립 50주년이라는 의미와 맞물려, 37개국 135개 지부가 참가했고, '세계 불교대학 개교식'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본부' '연말회지부' '원불교지부' 등 3개 지부에서 30여 명이 함께 했다.

그런데 총회나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속에서의 한국불교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게 총회 참석자의 전언이다. 9일에는 세계불교대학의 개교식이 열렸다. 이 대학은 WFB에서 유능한 불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이날 개교식에서 30여 개국의 불교계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한 한국측 지부에서는 어떤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다. 11일까지 계속된 회의나 세미나에서도 한국측 지부 스스로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WFB 관계자는 "한국측 지부는 종단과의 고리를 잃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불교계를 대표할만한 위상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즉 WFB는 승가와 재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승가와 재가의 비율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



WFB는 5~12일 태국 방콕에서 21차 총회를 열고 내년을 '지비의 해'로 정했다. 조계종은 이번 총회에 가입신청서를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WFB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90년에 열린 서울 총회를 기점으로 참예 국면을 맞은 한국 지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원 스님이 이번 총회에서 WF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신청서는 6개월마다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후 열리는 제22차 총회에서 결정된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관삼
본설고문: 고은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www.buddhop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財團 韓國佛教法輪宗 前 第2世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49齋大法會 案内
혜련당 일화 대종사 49재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를 앙원하나이다.
일시: 불기 2545년 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음력 경진년 12월 26일)
장소: 충남 공주시 금학동 원효사 대법당
문의처: 원효사 종무소 (041)855-2839
불기 2545년 1월 1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원효사 주지 석해월 합장 혜련 문도회 일동
인사말씀
財團法人 韓國佛教 法輪宗 前 第2世宗正 慧蓮堂 一華 大宗師 永訣式 및 茶毘式을 宗團葬으로 佛紀 2544年 12月 7日 宗團의 元老 스님 및 大德 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 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 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을 眞心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宜當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드림이 道理 이오니 于先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代身함을 寬容하시여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餘不備禮上 하나이다.
불기 2544년 12월 15일